


공동체 소식



예수 부활 대축일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 + 냉담가정을 위하여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성주간 전례와 부활 대축일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부활 팔일 축제 내 주간미사 안내

- 3/29(화): 저녁 7:30, 부활 팔일 축제 내 화요일 미사
- 3/31(목): 오전 10:00, 부활 팔일 축제 내 목요일 미사
- 4월 첫주간 신심미사는 없습니다.

부활계란 판매

- 내용: 본당 교육부 주관으로 부활계란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늘 미사 후에 주일학교 '에그헌팅'이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 전례꽃'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29	135	174/175	134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복사단 전체	
다음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채린 소피아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주	정수한 베드로	감영진 라파엘	감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행사조 1조 (애찬 1조 ~ 6조)
금주	박정자, 김경들, 이은미, 신부님,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정지현, 한순례, 조지연, 유수경,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주	정연숙, 장남순, 박동희, 박혜정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20	78명	345불	460불
(총 3세대) *2차헌금: 204불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 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중-

예수 부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6년 3월 27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쁨을 전하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합시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화해설

그리스도의 부활 (조반니 벨리니, 1475~1479년,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 소장)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조반니 벨리니의 작품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는 그리스도의 발 밑에 그가 묻혔던 무덤이 있고, 미처 깨어나지 못한 병사들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졸고 있다. 무덤 문은 이미 열려있고 그리스도는 한 손에 승리의 깃발을, 또 한 손은 세 손가락을 편 채로 새벽 하늘 위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빈무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의미한다.

- 지영현 시문 신부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ㄱ.37ㄴ-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화 답 송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또는 1코린 5,6ㄴ-8>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쉐 마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에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의미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에게 부활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초세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의아해했고, 어떤 유다인들은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숨겨 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거짓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걸쭉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돌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강렬한 체험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은 여러 방식으로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체험했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들이 감히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라면 그리스도교는 분명 시작과 더불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기반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보면 부활은 책상에 앉아서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체험되는 하나의 실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증언할 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증언한 부활 체험은 오늘날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부활의 실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겠지요.

진정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십자가를 얼마나 기꺼이 지느냐에서 확인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는 십자가를 결코 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활을 더욱 깊이 체험하려면 일부러 더 큰 십자가를 찾아서 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져야 하는 십자가의 크기만큼의 부활 체험도 주어지겠지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린 이들만이 부활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성령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 부활의 실재를 더욱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진정 깊이 있게 체험할 때 비로소 마음으로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의 부활

예루살렘 성전 성묘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 옆에 막달레나의 부활 체험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막달레나의 부활 체험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 사랑받은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복음 속 그녀의 신앙은 연민과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막달레나의 사랑이 연민과 집착 안에서 혼란을 겪고 난 뒤에야 그녀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또한 빈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막달레나는 주님을 잃고 그분에 대한 지나친 연민과 집착의 시간을 지낸 후에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는 진정한 사랑 안에 깊이 머물렀기에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뒤를 따라가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통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확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고 의미 없이 지나쳐버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체험시켜주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분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나친 애정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부활을, 무미건조한 삶에 생기를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는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현존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을 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각한 제자가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체험한 빈 무덤에서의 부활 체험은 새로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의해 창립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교구 공동체도 주교님과 함께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며 공동체적 나눔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사랑받은 제자도 들어갔다.”(요한 20,6,8)

-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

복음묵상

굳이



굳이 백성에게 버림받음이어야

굳이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굳이 부활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으셨는지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요한 20,9)

- 임의준 신부 3